

동네 책방서 들여다 본 광주의 면면

광주문화재단, 릴레이 북토크 '숨' '책과 생활' 등 동네책방 5곳 고영서 시인·최용호 작가 참여 광주극장 이야기 등 독자와 공유



동네책방 릴레이 토크 '면면'이 오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 사진은 동네서점 책과생활.

광주의 동네책방, 작은 도서관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간은 모두 지역의 문화자산이다. 이들 공간에는 규모가 큰 문화기관과는 다른 그곳만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다. 아울러 지역 문화사랑방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색 있는 독립 출판물을 매개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범박하게 말한다면 동네책방은 작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독자와 만나는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고 융합되는 지역 문화의 최전선과도 같은 곳이다.

책을 매개로 광주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비대면 동네책방 토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번 동네책방 토크 '면면'은 광주문화재단이 2021 광주문화 자산구축사업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파종모종, 러브앤프리, 동네책방 숨, 사이시옷, 책과생활 등 지역서점 5곳이 참여한다. 오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양지에 파종모종 대표는 "이번 기획 취지는 지역의 여러 면면들을 릴레이 토크를 통해 들여다본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공간으로서의 동네책방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릴레이 토크에는 실제로 광주 작가가 집필했거나, 내용이 광주를 소재로 하거나, 또는 지역 독립출판으로 출간된 책과 해당 저자가 토크의 주인공이다.

양지에 대표는 "광주의 5개구 동, 서, 남, 북, 광산에서 각 구마다 각 1곳의 서점을 선정했으며, 북구는 파종모종이 기획을 한 관계로 나머지 4개 구에서 각 1곳의 서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첫 시작은 오는 30일(오후 7시) 양림동에 있는 독립서점 러브리앤프리. 이날 토크는 러브앤프리



에서 독립 출판한 책의 저자를 초청해 '광주의 독립출판'에 대해 얘기한다. 주인공은 '엄마의 영어일기'를 쓴 송지혜 작가와 '골키퍼의 환혼'을 펴낸 서정완 작가. 전자는 우울증이 심했던 저자의 어머니 지숙씨가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10개월간 썼던 영어일기를 저자인 딸이 책으로 펴낸 것이며 후자는 아마추어 골키퍼 생활을 마감하면서 느낀 단상을 드로잉 삽화와 함께 결집된 은퇴자 에세이다.

7월 28일 동네책방 숨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은 고영서 시인. 최근 펴낸 시집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을 토대로 시인은 5·18의 문제를 성찰하고 나아가 당시의 상흔을 현재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게 된 내용 등을 독자와 공유할 예정이다.

노지영 평론가가 고 시인의 작품집을 "오월의 기억이 누군가의 특권적인 정체성으로 소유되지 않

도록 4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오월의 흔적들을 찾아 나신다"고 평한 것처럼, 이번 시집은 '미래 기억'과 연결하고자 하는 현재의 성찰로 다가온다.

광주극장을 모티브로 그림책을 펴낸 작가를 만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8월 25일 동네서점 사이시옷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의 그림을 그린 최용호 작가가 광주극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업 과정과 아울러 1935년부터 2020년까지 85년이라는 광주극장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다.

마지막 9월 29일에는 책과생활에서는 '모모는 철부지'(최유준·장상은)를 이야기한다. 저자들은 전일방송 대학가요제가 이어졌던 1970년대 후반, 짝지만 강렬했던 광주발(發) 히트곡의 흥성 내력을 통해 로컬 대중문화의 오래된 미래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tv'로 생중계 되는 북토크는 누구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북토크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댓글을 남기면 책방에서 추첨을 통해 4~5명 참가자에게 깜짝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2, 010-9452-16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창만드리 보존회의 '서창만드리 풍년제' 장면

'서창만드리 풍년제'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광주시 예선대회 대상 수상 '만드리 풍년제' 7월 29일 개최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7월 백중(음력 7월 15일) 무렵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김매기를 재현하는 행사다. 논 주인이 불부터 수고한 농사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시작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았다.

서창만드리 보존회(회장 정병철)가 지난 5월 광주시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한 한국민속예술제 제23회 시 예선대회에 '서창만드리풍년제'로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예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공연장

에서 참가팀을 개별 영상으로 촬영해 이를 심사한 후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창만드리 보존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연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창만드리 풍년제'가 지역사회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광주시 대표로 2022년 10월에 열리는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해 전국 시도 단체와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펼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만드리 풍년제'는 오는 7월 29일 서창한옥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은 7월 2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야외음악회를 연다.

국립나주박물관,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으로 큐레이터와의 대화, 우리 집에 온(ON) 박물관, 우리 학교에 온(ON) 박물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국립나주박물관의 세 콘텐츠를 소개한다.

먼저 '온라인으로 만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오는 11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유튜브 채널을에서 만날 수 있으며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이 참여한다.

오는 30일에는 조용한 학예연구사가 특별한 '따뜻한 마음의 공간, 호남의 옛 부엌 유물'을 연계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리 집에 온(ON) 박물관'은 가족이 집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7세 이상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며 누구나 가능하다. 회당 50명씩 무료로 진행하며 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학교에 온(ON) 박물관'은 현장체험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박물관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영상은 물론, 체험자료까지 학교로 보내준다.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그대로 학교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으며 4개 프로그램을 학년별 교육 과정에 맞춰 제공한다.

문의 061-330-78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곡·팝송·대중가요 들으며 더위 날리다

광주시립합창단, 야외음악회 다음달 2일 광산구 쌍암공원

무더운 여름 시원한 호수 공원 잔디광장에서 가족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더위를 날려보는 것은 어떨까.

광주시립합창단은 7월 2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시민들을 위한 야외음악회를 연다. 합창, 남성합창, 중창,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곡, 뮤지컬, 팝송,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합창곡 '윌리엄텔 서곡'을 시작으로 '라데츠키 행진곡', '협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In the Mood' 등을 들려주며, '지금 이 순간', '걱정 말아 요 근대'도 준비했다. 또 '백일광', '웨딩케이크', 'I got Rhythm', '당신이 날 사랑하게 되는 날', '오 나의 태양'을 비롯해 '항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으로 합창단 전단원이 무대에 올라 '시작', '따따라 사바라', '트위스트' 등을 부르며 마무리한다.

지휘는 광주시립합창단 이준 부지휘자가, 진행은 제창주어나운서가 맡으며 실력과 뮤지션으로 구성된 5인조 밴드 리디안 팩토리가 함께 한다. 무료관람. 062-415-5203. /전은재 기자 ej6621@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